

이탈리아 곳곳서 만나는 전주 문화

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이것이 한국이다 That's Korea' 개최... 한지 전시회·국제 세미나 등 진행

유럽의 역사문화 심장부인 이탈리아의 4월이 전주의 문화로 물든다. 전주시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18일 동안 베네치아와 브레치아 등 이탈리아 여러 도시에서 전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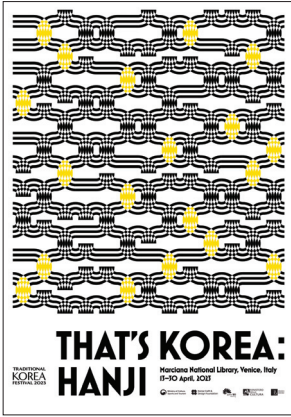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김태훈, 이하 공진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것이 한국이다: That's Korea: Hanji'가 계획돼 있다.

먼저 세계적인 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인 베네치아의 마르차나 국립도서관의 산소비노 전시관에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이 함께 기획한 이번 전시는 한지가 지닌 가치와 확

장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선 왕조실록 복본 △전주한지 △지역작가의 작품 △전통한지를 재로로 활용한 작품 등 약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기간 중인 13일에는 전 세계 복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세미나도 개최된다.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복원'을 주제로 열리는 발표회는 15일 이탈리아 브레치아에서 열리게 될 '전통한지의 활용과 변용' 세미나와 더불어 로마 미술대학의 교수와 바티칸 복원실장 등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한지의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여서 기대를 모은다.

이어 19일에는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국립마르차나 도서관(관장 스테파노 캄파놀로)



'이것이 한국이다 That's Korea' 포스터
간 '기록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전통종이 활용'과 관련한 업무협약도 예정돼 있다.

시는 최근 다양한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에 걸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행사가 전주를 대한민국 문화거점으로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가진 한지라는 콘텐츠는 종이 그 이상의 것으로, 목판인쇄 문화발전을 선도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한지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한지뿐만 아니라 전주가 가진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세계인에게 알리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 나선다

전주시, 교차로 상습 정체 해소 위해 실시시설 용역 추진

'서곡교~홍산교' 일대 교차로의 출·퇴근 교통혼잡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곡교 사거리 교통개선사업' 실시시설 설계안 공사에 대한 도면구상, 시방서, 내역서 등을 설계하는 용역이다. 사업기간인 서곡교 사거리의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와 기관대로, 온고을로 등을 연결하는 주요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 시민들이 주말과 출퇴근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다.

시는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에는 총 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주민들이 보행 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한 교통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완산구, 도로점용료 체납분 특별 징수기간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도로점용료 체납분(2022년)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며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에 나섰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 공장물 불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교통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완산구는 지난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체납된 218건(총 1억 3200만 원)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독려를 실시한다.

완산구 도로점용료 1년 세외수입은

2022년도 기준 약 12억8000만 원 수준이다.

이번 체납 고지서 발송은 도로점용료 체납 금액 30만 원 이상 대상자에 대해 4월과 5월 2회에 걸쳐 발송한다. 여기에 구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재산 조회를 거쳐 자동차나 개별 재산에 압류를 병행하는 특단의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도로점용료 납부는 OCR고지서가 없어도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2023년 정가분 도로점용료는 오는 6월 중 부과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 발전 위한 시민 의견 청취

우범기 시장, 인후1동·인후3동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와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력을 위한 의견을 듣는 동 순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인후1동과 인후3동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 동부권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동 순방은 민선8기 전주시정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 시장은 민선8기 전주시 비전과 주요 사업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은 먼저 인후1동 주민센터에

서 열린 방문 일지에서 참석한 인근 주민과 시의원,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170여 명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인후1동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인후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 확대 △견훤로~인골네거리 인도개선사업 등에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우 시장은 이어 오후 시간에는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근 주민과 시의원, 유관기관 대표, 자생단체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후3동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인후1동과 인후3동을 차례로 방문해 전주 동부권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주민들은 △전주관광 캐이볼카 설치 △야중호수 관광지 조성 △세대통합형 돌봄센터 조성 추진 △전주형 창의교육 야호화교 운영 △인후3동 공원시설개선 △인후3동 가로등·보안등 조도개선 등에 대

해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시는 이날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조아름 기자

덕진경찰서, 메신저피싱·타인 제공 음료시음 주의 당부

최근 서울 학원가 일대에서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으며 마약성분이 담긴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속여 마시게 한 후,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냐"며 부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12일 전주유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1·2학년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유사한 의심사례 발생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김 서장은 교육을 통해 발신번호 변작이나 메신저 계정도용 후 가족·지인을 사칭해 상품권 대리구매 요청이나 카드번호,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례를 설명하고,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 메신저피싱에 대처하도록 안내했다.

덕진서 학교전담팀은 관내 초·중·고 67개교에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교내 홈페이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발송을 통해 이 같은 피해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한 바 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산악사고 구조역량 강화 훈련 실시

불철 산악사고 발생시 구조에 대한 역량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구조대들의 구조역량 강화를 높이기 위해 덕진구 기린봉 일원에서 특별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전주덕진소방서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총 37건으로 파악되고 있는

며 이중 산악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실족·추락 등 사고로 인한 출동이 2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여기에 조난 출동 6건, 기타 산악사고 5건, 개인 질환 출동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특별구조훈련을 통해 전주덕진소방서는 실족 추락, 조난 등 다양한

유형의 산악사고에 대비하고, 요구구조자 구조, 이송 및 실종자 수색 등 구조 활동 역량을 강화해 구축한 것이다.

이번 훈련의 중점 사항으로는 △추락·조난 등 구조 유형별 인명구조 방법 숙달 △인명구조 로프 설치 및 등산·등반법 숙달 △상황별 인명구조 기술 훈련 △지형별 산악수색법 △산악사고 유형별 환자 기초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산악 환경에 신속하고 연한 대처 능력을 배

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진행됐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산을 찾을 때는 음주나 흡연은 절대 삼가고, 무리한 산행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정된 등산로 이용과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동참해 달라"며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주변의 산악위치 표지판을 보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재비산먼지 저감 위해 소방 차량 지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소방 차량을 이용해 덕진구 집중관리도로에 하루 2회 물 뿌리기를 실시한다.

전주덕진소방서의 살수 조치는 도로 위 '재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조치다. '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 마찰에 의해

서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이 10μm 이하인 먼지들이 대기 중에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도민 건강에 큰 해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됐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